

## 司書之大道 君子不器

人品을 논할 때 흔히 그릇(器)에 견주어 크고 적음을 말한다. 이는 孔子의 사상중 論語의 君子不器에서 부터 유래된 비유이다. 君子는 일정하게 정형화된 그릇이 되지 않는다지만, 특정한 기능과 지식에 얽매어 전체적인 식견과 판단력이 결여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서 君자는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全裁者(generalist)로서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 그 본질적인 의미이다. 그래서 君자는 전문가가 아니고 全才자이어야 한다(The wise man is not specialist but generalist).

최고의 권력도 총구로 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지식과 정보에서 창출된다는 정보화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라이브러리언’은 어떤 그릇에 비유될 수 있을까. 회고해 보건데 그 그릇의 크기는 매우 적은 容器로서 안주하면서 그 그릇의 성능도 다 발휘하지 못한 누군가가 채워지면서 외쳤던 이 시대의 마지막 내시었음을 부인하지는 못하리라고 생각된다. 오늘날 정보화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진정한 라이브러리언이라는 그릇의 성능은 전문가(specialist)가 아닌 全才자(generalist)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라이브러리언이라는 그릇에 무엇을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첫째 이용자를 얼마나 담을 수 있는나의 포용력이다. 이는 사서가 사서이어야 하게 하는 원인이며, 동시에 사서가 존재하여야 할 실존의 의미를 가지게 하는 패러다임이다. 이용자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넓이다. 둘째는 정보테크놀러지이다. 이는 지식과 정보의 가공, 처리, 제공해주는 능력이다. 새로운 정보환경에 맞는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의 축적과 개발능력이 우수하여야 한다는 논리이다. 셋째는 사서의 지적능력의 문제 등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적시에 적자에게 적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 세가지의 역량이 결국 라이브러리언 그릇의 대소 즉, 불기의 기본적인 평가요소로 생각되며, 이 요소들이 균형을 이룰 때에 全才자로 자임할 수 있을 것이다.

라이브러리언은 특정주제분야에서만만의 고도의 지식을 소유하고 그 주제분야에서만 정보를 서비스 해 주는 이른바 specialist가 아닌 고대나 중세도서관에서 근무했던 이른바 학자사서로서의 one-person-library의 관리자로서의 그릇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기능의 희귀성을 요구하고 있다. 문헌정보학을 이수하고 라이선스를 획득한 라이브러리언은 한 주제에만 정통해서는 안되며, 정보센터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경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全才자이어야 한다. 이는 living encyclopedia 또는 walking encyclopedia로서 generalist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보화사회가 성숙될수록 one-person-library의 등장은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 ‘one’이란 全才자인 generalist를 의미한다. 그러기에 라이브러리언은 大器이어야 하며, 더구나 쓸자리에 따라 선택의 기준이 다양해지는 정보시장의 환경에서 보면 generalist로서 그릇의 기능이 요구된다.

이러한 논리에 부합시키기 위해서는 문헌정보학의 재정립이 시급히 요구되며, 교과과정 역시 시대

에 맞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정보화사회가 성숙될수록 라이브러리언은 반드시 전제자인 전자불기로서 기능하여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요즘 대학사회에서 거세게 불고 있는 학과의 통폐합문제는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너무 커서 쓸곳이 없는 大器는 쓰지 못하는데 쓸모가 있는 것이다. 無用으로 爲用이란 의미이다. 정보가 담겨질 그릇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정보를 담아 소화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서는 전자불기어야 하며 전자자이어야 한다.

(남태우/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